

5월23일(월)/엠플1:15~23

**제목: 어느 파트에서 일하세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통찰력이 내려지기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 기도했다(17~19절). 그리고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을 예수님 앞에 복종케 하는 것이며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22~23절). 즉, 그 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 되며,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대한 과업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22~23절). 머리는 머리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면 교회는 바로 그의 손, 발,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에 달려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의 구성원인 ‘나’에게 달려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나는 오늘 예수님의 어느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가? 손 파트인가? 발 파트인가? 목소리 파트인가?

5월24일(화)/엠플2:1~10

**제목: 믿는 자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전에는 세상의 두목과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고 바울도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자였다(2~3절). 그러나 공훈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4~7절).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8절). 그리고 바울은 크리스찬은 선행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하였다(10절). 다소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인간은 어떠한 선행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위대한 역설이 있다. 어떤 한 위인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한다. 크리스찬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은 자이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의 다음 차례는 선행이다.

5월25일(수)/엠플2:11~22

**제목: 매일 나갑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11~13).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화해를 시키셨던 평화의 전도자였다(14절).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양쪽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게 하셨다(18절).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이제부터 나그네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었다(19~21절). 그들은 이제 아무 거리낌 없이, 누구의 중보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나간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왕 앞에 데리고 나갈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나 큰 희소식이였다.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권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나가고 있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무엇을 들고 나가고 있나? 우리는 우리의 근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연을 가지고, 우리의 고독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매일 매일 그분께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왕이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5월26일(목)/엠플3:1~13

**제목: 하나님 사업은 항상 완성됩니다.**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이방인이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다(6절).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과거 세대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아닌 선지자들에게만 알리셨고 지금은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에게 은혜로 알리셨다(3~8절). 바울은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을 알려주라고 부름 받았다(8~9절). 그러므로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일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환난까지도 각오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혼란 당하는 것을 보아도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였다(13절). 그는 이 편지를 옥중에서 썼다(1절). 그는 곧 심문을 기다리며 독기를 품은 박해자들과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썼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이방인을 위한 투사가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갇혔다고 하나님의 사업이 불리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보다 위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분명하다면 그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해도 그것은 완성된다.

5월27일(금)/엡 3:14~19

### 제목: 성령충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다(14~15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군세게 하여주시기를 간구하였다(16절).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실 수 있기를 간구하였다(17절). 그렇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은 비로소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깨닫게 된다(17~19절).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비밀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심령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뜻도 알 리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밖에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가지지 못하는 장소는 없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게 되고, 하나님 사랑의 충실한 도구가 된다. 반면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 자는 항상 영적으로 방황하며 목표없이 빈둥거리게 된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